복지예산 부족한데 줄줄 새는 기초생활비

광주·전남 4년간 3000여명 넘게 부정 수급 17억8000만원 혈세 누수…방지시스템 시급

지난 4년7개월간 광주·전남지역 거주자 중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타낸 혈세 (血稅) 도둑(?)이 무려 30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가 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 누수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 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조사인력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 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소 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지난 4년7개월간 무려 17억8491만 원(징수금액 9억63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이중 광주지역 부정수급자 수는 1406명 이며 부정수급액은 11억2699만 원이다. 전남은 1663명에 6억5792만 원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 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 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

연도별로는 ▲2010년 535명(부정수급 액 2억7045만 원) ▲2011년 852명(〃 4억 500만 원) ▲2012년 552명(〃 5억4860만 원) ▲지난해 884명(〃 3억7900만 원) ▲ 올해 246명(〃 1억8186만 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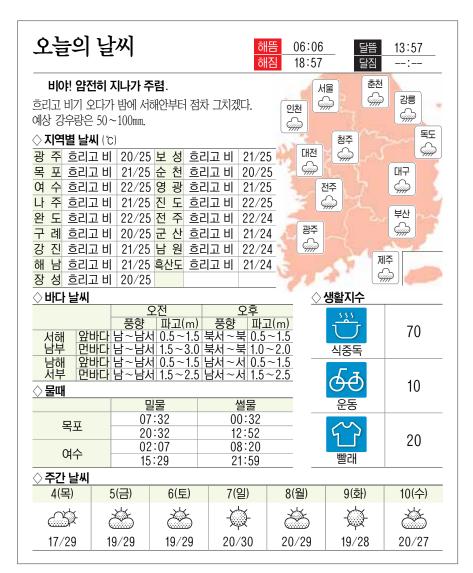
올 들어 7월 31일 기준, 서구가 부정수 급자 90명에게 4679만 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해 광주시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구 18명(1405만원) ▲북구 11명(1202만원) ▲광산구 6명(898만원) ▲남구 2명(292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선 무안이 32명(384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 22명(715만원) ▲ 여수 18명(889만 원) ▲해남 7명(317만원) ▲영암 6명(281만원)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 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 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 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

한편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은 수 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할경우, 또 사실혼·위장이혼, 사망, 군 제대·교정시설 입소 등 세대원 수가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발생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묘비 닦고 잡초 제거 봉사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년간부회의위원들과 직원들이 2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운정동 5.18 구 묘역에서 잡초제거와 묘비 닦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을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 8~12일 전국 9000가구를 상대로 3

귀성길 6일 오전, 귀경길 8일 오후 가장 혼잡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 인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 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일 예상했다.

서울~광주 8시간 소요 예상

귀성·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 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 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 다 귀성길은 30분~1시간가량 감소하고 귀경길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11 일 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3945만 명으로 하루 평균 564만명이다. 특히 추 석날에는 74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8~12일 전국 9000가구를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국도로공사 예측 결과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할 때 귀성길은 작년보다 1시간가량 덜 걸리지만 귀경길은 소요 시간이 1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최대예상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4시 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8시간, 서서울→목포 9시간 30분, 서울 →강릉 4시간 30분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

세월호 참사 수습 복귀 중 사고 유족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어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30% 정도 더 많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여수~통영 적조경보로 확대 발령

적조주의보서 강화

국립수산과학원은 2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여수시~남해군 연안(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경남 통영시 사량면수우도)에 발령했던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강화 발령했다.

이날 조사결과 통영시 사량면~남해 군~여수 동측 수역에 적조가 확산·분 포했으며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 니움이 300~2천개체/ml 정도로 늘었다. 적조생물 출현주의보(적조관심주의보)는 코클로디니움이 10개체/ml, 적조주의보는 100개체/ml, 적조경보는 1천개체/ml 이상일 때 발령된다.

현재 통영~남해~여수 연안의 수온 은 23℃도로 적조생물 증식에 좋아 일사 량이 늘어나면 적조 밀도가 높아지고 적 조 발생해역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수산과학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